



왼쪽부터 마한유적체험관 상설체험 '시루토기 복원', '악기연주', '활쏘기'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제공〉

마한유적체험관서 떠나는 신창동 역사 여행

마한유적체험관이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상반기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신창동유적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국가사적지인 신창동 유적 내에 문을 연 마한유적체험관은 우리 지역 초기 마한의 문화와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아(5~7세) 대상 '신기한 보물수레 이야기'와 '신창동 유물액자 꾸미기'는 어린이가 고고학자가 돼 신창동 유적 발굴조사 과정을 살펴보고 출토된 유물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교육·체험 결합 프로그램이다.

오는 6월30일까지 운영되며 어린이 집과 유치원 등 단체는 매주 화·수·오전 10시20분, 부모님과 개별적으로 방문한 유아는 매주 목·금 오후 4시에 참여할 수 있다.

4월8일부터 6월24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신창동 토기제작공방 '구멍 송송 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2023 상반기 체험프로그램

어린이문화교실·토기시루 만들기·신창동 목기공방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대 별 교육·만들기 활동 '다채'

기 시루 만들기'는 시루를 직접 데쌍기 방식으로 만들어보며 벼농사를 기반으로 했던 신창동 사람들의 식생활과 토기에 대해 배워보는 체험이다.

나는 신창동 디자이너 '마크라메 리스 만들기'에서는 신창동에서 출토된 실과 천을 제작했던 유물들을 토대로 신창동 사람들의 의생활의 일면을 살펴보고 마크라메 실을 사용해 장식품을 만들어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통 회화인 민화를 이용해 다양한 시각적 재료와 기법으로 병풍과 소풍백, 부채 등을 만들며 관찰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문화교실'도 마련됐다.

성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신창동 목기공방'은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목기 유물을 모티브로 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갈로 나무를 깎고 다듬어 여러가지 생활 소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나무의 재질과 성질에 따라 도구를 만들어 썼던 신창동 사람들의 목기 제작 기술을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프로그램은 오는 4·5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은 무료로 운영되며, 초등학생과 성인 대상 체험은 별도의 재료비가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체험 신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최경화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상반기에 진행되는 마한유적체험관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신창동 유적을 접하고 마한 문화에 대해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마한유적체험관 내부 전경.

ACC 문화예술 직군탐색과정 교육 운영

급변하는 문화예술 현장에 발맞춰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신(新)직업의 전망을 알아보는 직군탐색 교육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 등

이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기획, 경영, 창작 등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향후 창업 활동에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9일부터 6월28일까지 격주 수요일 문화정보원에서 '2023년 상반기 ACC 직군탐색' 과정을 운영한다. 7개 직종에 관한 설명과 함께 전망을 살펴보는 강의를 총 8회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문화예술분야 신직업 연구를 바탕으로 ▲오디오북 내레이터 ▲음악산업 전문가

▲문화예술 후원 매개 전문가 ▲전시테크니션 ▲공연(디지털) 미디어 전문가 ▲융복합 문화기획자 ▲웹 소설 기획자를 탐색 직군군으로 선정했다.

수강 신청은 각 강좌마다 20명씩 ACC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전통·현대 '조화'...악단광칠 콘서트

내일 남도국악원 토요상설공연

한국 전통음악을 유쾌하고 강렬하게 재해석해낸 국악 공연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5일 오후 3시대극장 전악당에서 '악단광칠' 초청 공연을 개최한다.

전 세계적인 인기로 국기와 장리를 불문하고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악단광칠'은 (사)정가악회 유닛그룹으로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결성된 단체다.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절묘하게 엮어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악기와 전통 보컬만으로 밴드만의 독특한 사운드를 선사한다.

공연에서는 '악단광칠'만의 색을 보

여줄 다양한 곡들을 약 60분간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모든 것을 이겨내려 애쓰는 삶에 보내는 위로의 곡 '와대바' 무대로 막을 올린다.

이어 서해안 배연신곡의 뱃노래를 재해석한 '어차', 황해도 무속의례 만수대타구에서 영감을 얻은 '리크나우 그나드카', 강렬하면서도 귀엽고 친근한 도깨비 이야기 '북대검' 공연이 펼쳐진다.

북청사자놀음 장단과 통소 가락을 모티브로 재해석한 '북청', 탈춤 없는 갑갑한 삶을 자조적 가사로 담아낸 '히히'를 비롯해 저답이 떠 있는 우주에서 다같이 춤을 추는 'MOON 굿'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최명진 기자



월곡고려인 문화관 '김만삼 특별전'

내달 1일부터 1년간...선조 업적 발굴·전시 지속

월곡고려인문화관 곁이 '노력영웅 김만삼 특별전'을 시작으로 고려인 선조들의 업적을 알리는 전시회를 지속 개최한다.

23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노력영웅 김만삼 특별전에 벼농사꾼들의 아버이자 사회주의 노력영웅 '김만삼'의 업적과 농업합동 등 다양한 생활상이 담긴 사진들이 공개된다.

김만삼(1882~1964)은 중앙아시아에서 벼농사 시대를 활짝 연 과학영농의 선구자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세계 최고의 벼 수확량을 올린 인물이다. 그의 업적은 적성민족으로 낙인찍혀 차별받던 고려인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줬다. 또 독립과의 전쟁으로 한 톨의 식량도 절박했던 소련 정부에게 큰 보탬이 됐다.

그 덕에 김만삼은 소련 전역에서 '벼



농사꾼의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렸고, 그가 농사를 짓던 철리 구역은 '배재배의 수도'로 추앙되면서 1987년 강제이주 후 절망에 빠져 있던 고려인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노력영웅 김만삼 특별전'은 개최 이후 1년 동안 진행된다. 관람은 문화관 휴일인 월요일과 신정, 구정, 추석 등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안재영 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 | | | |
|-----------------|-----------------|-----------------|-----------------|
| • 중앙지국 222-8171 | • 상무지국 453-2554 | • 유동지국 222-8171 | • 오치지국 261-9461 |
| • 산수지국 224-4188 | • 광천지국 374-2120 | • 운암지국 529-3548 | • 문흥지국 261-9462 |
| • 학운지국 673-6836 | • 진월지국 676-2726 | • 용봉지국 261-1503 | • 일곡지국 573-3200 |
| • 화정지국 372-9140 | • 봉선지국 673-6836 | • 신가지국 954-1420 | • 첨단지국 971-7374 |
| • 금호지국 376-7153 | • 백운지국 673-0123 | • 양산지국 574-3745 | • 치명지국 371-9584 |
| • 풍암지국 603-0311 | • 두암지국 266-1920 | • 하남지국 951-9954 | • 수완지국 955-0451 |
| • 노대지국 674-3581 | • 농성지국 362-4102 | • 운남지국 952-1687 | • 광산지국 944-0993 |

지방
지사

- | | | | |
|----------------------|---------------------|---------------------|---------------------|
| • 목포지사 061)270-8689 | • 나주시사 061)335-0005 | • 보성지사 061)852-6644 | • 무안지사 061)453-3645 |
| • 동곡포지사 061)278-0740 | • 광양지사 061)793-6800 | • 화순지사 061)373-7795 | • 함평지사 061)322-0882 |
|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 구례지사 061)782-4696 | • 장흥지사 061)863-6800 | • 영광지사 061)353-5133 |
| • 신안지사 061)980-8300 | • 담양지사 061)383-5566 | • 강진지사 061)432-8899 | • 장성지사 061)394-3636 |
| • 순천지사 061)746-1600 | • 곡성지사 061)362-5746 | • 해남지사 061)535-5849 | • 완도지사 061)555-0134 |
| • 여수지사 061)651-6433 | • 고흥지사 061)832-6290 | • 영암지사 061)473-7151 | • 진도지사 061)542-4330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